

2017년 8월 10일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서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미 증시, 북미 마찰 완화 기대 속 하락폭 축소 백악관 관계자, “트럼프 발언은 즉흥적이었을 뿐”

북미 마찰, 글로벌 경기 영향 미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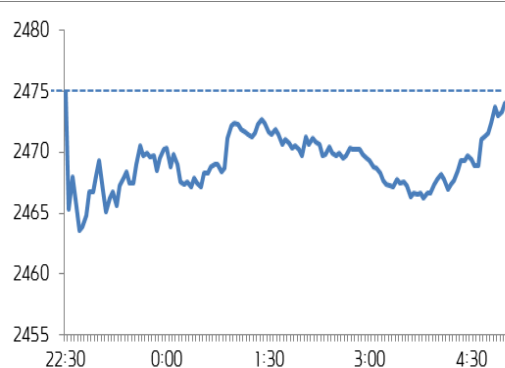
유럽증시는 북미간의 긴장 고조를 빌미로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 특히 코메르츠뱅크(-4.14%), 도이체뱅크(-3.78%) 등 금융주가 국채금리 하락 여파로 부진. 미 증시도 북미간의 마찰을 빌미로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 출발. 한편, 트럼프가 “미국의 핵무기는 어느때보다 강력하다” 라고 언급하며 이번 사태를 더욱 부채질 했으나 시장의 변화는 크지 않음. 장 막판 백악관 관계자가 “트럼프의 발언은 즉흥적이었을 뿐이다” 라고 언급 했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톤다운’ 되는 양상을 보이자 하락폭 축소(다우 -0.17%, 나스닥 -0.28%, S&P500 -0.04%, 러셀 2000 -0.94%)

북 미간의 극단적인 발언이 이어지며 시장은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 그러나 한편 ‘핵무기’와 관련된 내용이 오고 가는 등 극단적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변화폭은 제한적. 이러한 결과는 과연 이번 사태가 글로벌 경기에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중동관련 지정학적 리스크나 과거 냉전시대 같은 부분과 다르기 때문으로 추정. 즉 이번 사태가 ①글로벌 경기에 영향을 주는 국제유가에 영향을 주는가 ②구 소련과 미국처럼 강대국간의 마찰인가 ③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영향을 줄 것인가라는 세가지 요인에 충족되지 못하기 때문.

물론 한반도에서 극단적인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①중간재 수출이 많은 한국의 수출에 악영향을 줄 수 있고, ②안전자산 선호심리에 따른 달러 강세로 국제유가의 하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③중국이 개입된다면 강대국간의 마찰로 확대될 수 있음.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최악의 경우일 뿐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음

이러한 점을 감안 미 증시의 낙폭은 제한. 미 증시의 하락은 기술주에 대한 차익실현 매물, 국채금리 하락에 따른 금융주 부진의 결과일 뿐 북미간의 마찰을 확대 해석하는 분위기는 아님. 오히려 트럼프 발언 이후 사태가 확산되자 미 국무장관을 비롯한 여러 인사들이 ‘톤다운’ 되는 발언을 하며 북미 마찰 완화 가능성 제기

S&P 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동락률(%)	Close	D-1	지수동락률(%)	Close	D-1
KOSPI	2,368.39	-1.10	홍콩항셱	27,757.09	-0.35
KOSDAQ	642.87	-1.35	영국	7,498.06	-0.59
DOW	22,048.70	-0.17	독일	12,154.00	-1.12
NASDAQ	6,352.33	-0.28	프랑스	5,145.70	-1.40
S&P 500	2,474.02	-0.04	스페인	10,596.00	-1.29
상하이종합	3,275.57	-0.19	그리스	833.61	+0.38
일본	19,738.71	-1.29	이탈리아	21,848.37	-0.91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어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애플 상승세 지속

애플(+0.6%)은 신제품 출시에 따른 분기 매출 증가 기대와 중국 판매량 개선 기대감이 제기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브리스틀 마이어스(+0.9%)는 CheckMate 9ER로 알려진 암 면역 요법 관련 3단계 임상 시험을 시작했다고 발표하자 상승했다. J&J(+0.7%), 일라이릴리(-0.7%) 등 제약업종도 동반 상승했다. 엑손모빌(+0.3%), 세브론(+0.5%), 코노코필립스(+0.04%) 등 에너지 업종은 국제유가 상승에 힘입어 반등을 보였다.

월트디즈니(-3.9%)는 그 동안 넷플릭스에 제공하던 자사의 제품에 대한 스트리밍을 자체 제공한다고 발표한 이후 하락했다. 넷플릭스(-1.4%)도 동반 하락했다. 온라인 여행 예약업체 프라이스라인(-6.9%)은 실적 악화 여파로 하락했다. 다음날 실적을 발표하는 백화점 업체 메이시스(-2.1%)와 콜스(-2.1%)는 실적 발표 후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제기되며 하락했다. 약국 체인점 맥 케슨(-1.9%), 카디날 헬스(-1.6%)은 아마존의 온라인 약국 진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며 하락했다. JP모건(-0.2%), BOA(-0.6%), 씨티그룹(-0.7%) 등 은행주는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국제금리 하락 여파로 부진했다. 알파벳(-0.4%)은 성차별에 대한 집단 소송이 제기되며 하락했다.

주요 ETF

ETF 종류	동락률	ETF 종류	동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0.4%	대형 가치주 ETF	-0.2%
에너지섹터 ETF	-0.7%	중형 가치주 ETF	-0.5%
소매업체 ETF	-1.1%	소형 가치주 ETF	-1.0%
금융섹터 ETF	0.0%	배당주 ETF	-0.3%
기술섹터 ETF	-0.1%	변동성 ETF	+2.5%
소셜 미디어업체 ETF	+0.2%	대형 성장주 ETF	-0.0%
인터넷업체 ETF	-0.4%	중형 성장주 ETF	-0.1%
리츠업체 ETF	+0.1%	소형 성장주 ETF	-0.7%
주택건설업체 ETF	-0.4%	신흥국 고배당 ETF	-0.9%
바이오섹터 ETF	-0.3%	신흥국 저변동성 ETF	-0.5%
헬스케어 ETF	+0.1%	하이일드 ETF	-0.4%
곡물 ETF	-0.6%	물가연동채 ETF	+0.2%
반도체 ETF	-0.2%	Lon/short ETF	0.0%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479.23	+0.12%	-1.86%	+0.45%
소재	339.63	+0.14%	-0.93%	-1.53%
산업재	586.11	0.00%	+0.31%	-0.83%
경기소비재	721.96	-0.47%	-0.60%	+0.98%
필수소비재	568.89	+0.14%	+0.14%	+1.60%
헬스케어	917.05	+0.16%	-0.22%	-0.23%
금융	419.08	-0.08%	-0.17%	+1.59%
IT	994.37	+0.03%	+0.41%	+2.60%
통신	159.72	-0.35%	-0.28%	+6.74%
유틸리티	273.08	-0.49%	+0.17%	+3.82%
부동산	200.30	+0.13%	-0.41%	+1.96%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반발 매수세 유입 기대

MSCI 한국 지수는 1.95% 하락했으나 MSCI 신흥 지수는 0.90% 하락에 그쳤다. 야간선물은 외국인의 순매도(1,286계약) 여파로 0.45pt 하락한 309.55pt로 마감했다.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138.80원으로 이를 감안하면 달러/원 환율은 3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증시가 전일 북미간의 마찰여파로 하락했다. 그러나 오늘은 미 증시 장 후반 미 국무장관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의 '톤다운' 발언들이 이어지며 하락폭 축소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반발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특히 이번 사태가 있기 전 트럼프 당선 이후 북한과 관련된 이벤트가 50번이 넘게 있었지만 시장의 변화는 제한적이었던 점도 주목된다. 더불어 전일 한국의 CDS 프리미엄이 61.03으로 소폭 상승에 그쳤다는 점 또한 한국 증시의 하락을 제한 할 것으로 판단한다.

이를 감안하면 이번 사태로 인해 한국 증시의 하락폭이 확대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기업이익 개선이 이어지며 KOSPI PBR 1배인 2,339pt를 하회할 가능성은 제한 될 것으로 여겨진다. 결국 이번 사태로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되면 기업이익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도 높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노동 생산성 증가

미국의 2분기 노동 생산성이 전분기 대비 0.9% 증가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1.2% 증가하며 양호한 결과를 보였다. 한편 2분기 단위노동 비용은 전분기 대비 0.6% 증가에 그쳤다.

미국의 6월 도매 재고는 전월 대비 0.7% 증가했다. 이는 잠정치(+0.6%) 보다 상향된 결과다. 한편 도매 판매는 전월 대비 0.7% 증가하며 양호한 결과를 발표했다. 재고대 판매율은 1.29개월이었다.

애틀랜타 연은은 GDPNow를 통해 미국의 3분기 GDP성장률을 3.5%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4일 발표된 3.7%보다 소폭 하향 조정된 결과다.

상품 및 FX시장 동향

국제유가 상승

국제유가는 EIA가 지난주 원유재고가 645만 배럴 감소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상승 했다. 더불어 달러가 미 증시 시작 후 강세폭을 축소할 점도 상승 요인 중 하나였다. 그러나 가솔린 재고가 342만 배럴 증가했다는 발표 여파로 상승세는 제한 되었다. 여름철 드라이빙 시즌이 끝나가고 있어 가솔린 재고 증가 가능성이 제기된 결과다.

달러는 미국의 2분기 노동 생산성 증가와 도매판매 개선에 힘입어 여타 환율에 대해 강세를 보이며 출발 했다. 그러나 미 국무장관이 “임박한 북한의 위협은 없다” 라고 주장하자 매물이 출회되며 상승 폭을 축소했다. 엔화 또한 이 발언 이후 달러 대비 강세폭이 축소되는 등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완화 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블라드 총재가 “현재 수준의 금리를 유지해야 된다” 라고 주장한 점도 달러 강세폭 축소 요인 중 하나였다.

국채금리는 북미간의 마찰 여파로 하락했다. 트럼프가 “미국의 핵무기는 역사상 가장 강력하다” 라고 주장하는 등 긴장이 고조 되며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확대 되었다. 이 영향에 힘입어 국채가격이 상승 하며 반대로 움직이는 국채금리 하락세를 부추겼다. 더불어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과도하게 공격적인 금리 인상은 위험하며 금리는 현재 수준에서 유지해야 한다” 라고 주장한 점도 하락 요인 중 하나다.

금은 북미간의 마찰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심리에 힘입어 상승 했다. 비철금속은 장 초반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하기도 했으나 낙폭은 제한되었다. 곡물은 USDA의 세계곡물 수급 전망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상승했다. 건조한 기후가 이어지며 가을 생육기에 기온 저하 가능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주요 상품	증가	D-1(%)	D-5(%)	주요 통화	증가	D-1(%)	D-5(%)
WTI	49.56	+0.79	-0.06	Dollar Index	93.540	-0.11	+0.76
브렌트유	52.70	+1.07	+0.65	EUR/USD	1.1759	+0.06	-0.82
금	1,279.30	+1.32	+0.07	USD/JPY	110.05	-0.24	-0.61
은	16.863	+2.89	+0.78	GBP/USD	1.3007	+0.12	-1.63
알루미늄	2,027.50	-0.12	+5.82	USD/CHF	0.9633	-1.12	-0.78
전기동	6,455.00	-0.39	+1.62	AUD/USD	0.7887	-0.34	-1.02
아연	6,153.08	+0.22	+5.00	USD/CAD	1.2700	+0.26	+1.03
옥수수	386.25	+0.65	+1.91	USD/BRL	3.1545	+0.90	+1.31
밀	486.75	+0.57	-0.21	USD/CNH	6.692	-0.30	-0.56
대두	973.25	0.00	-0.43	USD/KRW	1135.2	+0.90	+1.00
커피	146.15	-0.10	+1.53	USD/KRW NDF 1M	1138.8	+0.86	+1.45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미국	2.248	-1.43	-2.34	스페인	1.415	-1.80	-3.00
한국	2.332	+2.50	+8.50	포르투갈	2.809	-2.10	-1.20
일본	0.058	-1.20	-2.00	그리스	5.456	+4.90	+3.80
독일	0.428	-4.60	-5.80	이탈리아	2.005	+0.80	-0.10